

반성 없는 '쫄 재출간 회고록' 또 법정 간다

〈두한〉

시민군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

암매장 부정 등 역사왜곡 다수

출판·배포금지 가치분 신청

5월 단체들 다음달 추가 소송

5·18기념재단 등 광주 5월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 1권-흔돈의 시대' 재출간본에 대해 다음달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의 판결로 새롭게 수정 출간된 1권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실려있기 때문이다. 5월 단체들은 이번 소

송을 계기로 5월에 대한 왜곡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흔돈의 시대'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초 법원에 출판·배포 금지 가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책의 출판·배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재출간본은 법원의 가치분 결정이 내려져 삭제된 33곳을 제외하고 시중에 나왔다. 출판사 자작나무 숲이 새로 인쇄한 회고록 1권은 책 포장지 피지에 '법원의 가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을 명시하고 삭제된 부분마다 '법원의 가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을 달았다.

5월 단체 등은 이번 소송에서 책에 담긴 1980년 5

월21일 집단 발포 때 자위권 발동 합리화, 시민군의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 암매장 부정, 교도소 습격 등 역사왜곡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충돌이 유행사태로 번지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399쪽), '무기고 습격이 5월21일 오후 1시 이후에 시작됐다고 하는 시민군 측의 주장과 달리 그날 오전부터 이미 무기고 습격이 진행됐다는 기록들이 있다.'(403쪽) 등이다.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 무장의 경우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5·18 관련 보고서를 통해 조작된 기록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5월단체는 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5월 단체들은 지난 8월4일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회고록의 유통 등이 중단됐다. 당시 5월 단체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 대표적 왜곡사례 33곳만 주러 소송을 제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

추가 소송 변론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성없이 회고록을 재출간하며 스스로 5·18 진상규명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두번 다시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집중' 고3 수험생 등이 29일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한 미술학원에서 미술 실기 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록물 기증자들이 들려주는 '5·18'

기록관, 내달 2일 '기증자의 날'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월 관련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증자의 날(시민집담회)' 행사를 처음 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외갑)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그동안 5·18 관련 기록물을 기증한 사람들을 초청해 '기증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980년 5·18 직후 계엄군에 의해

검열된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원본을 기증한 김성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5·18 당시 태극기와 탄환을 기증한 정용화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 성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기증한 장갑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부관장 등 3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나와 기록물"을 주제로 1980년 5월과 1987년 6월항쟁 당시 신군부의 폭압과 군부독재정권의 연장 음모에 맞선 기억과 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1 해질 15:10
해진 17:21 달뜨기 03:01

쌀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체감온도가 낮겠다.

광주	맑음	0/7	보성	맑음	-1/7
목포	구름맑음	2/6	순천	맑음	3/8
여수	맑음	4/9	영광	맑음	-2/5
나주	맑음	-1/7	진도	맑음	1/6
완도	맑음	3/7	진주	맑음	-2/5
구례	맑음	-2/7	군산	맑음	-1/5
강진	맑음	1/7	남원	맑음	-3/6
해남	맑음	0/7	흑산도	구름맑음	4/6
장성	맑음	-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2.0~4.0 면바다 북~북동풍 2.0~4.0	파고(m) 1.5~3.0 북서~북동 1.5~3.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1.0~3.0 면바다(동) 북서~북동풍 2.0~4.0	파고(m) 0.5~2.0 북서~북동 1.0~3.0

◇ 생활지수

산불	보통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2/1(금)	☀	-2/7
2(토)	☀	-1/10
3(일)	☀	-1/13
4(월)	☁	2/10
5(화)	☁	-1/6
6(수)	☁	-2/7
7(목)	☁	-1/8

중·고생 기초학력 후퇴

올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수학 미달 급증... 고교 수학 9.2%

남학생 비율 높아

올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수학 모두, 중학생은 국어·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국어와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중·고 학생 93만5059명의 약 3%인 2만8131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3과목에 걸쳐 치러졌다.

평가 결과, 고등학생의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76.2%, 수학 76.9%, 영어 82.5%로 지난해보다 각각 7.9%포인트, 1.3%포인트, 3.5%포인트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7%, 수학 9.2%로 각각 1.5%포인트와 3.9% 늘었고, 영어는 3.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85.2%)와

영어(73.4%)가 4.9%포인트와 1.3%포인트씩 줄었고, 수학(68.4%)은 지난해(68.2%)와 비슷했다.

성별로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교 국어(남 80.2%, 여 90.7%)·수학(남 67.4%, 여 69.5%)·영어(남 68.9%, 여 78.3%), 고등학교 국어(남 69.5%, 여 83.6%)·수학(남 75.9%, 여 78.0%)·영어(남 78.7%, 여 86.7%) 모두 여학생 성취도가 훨씬 높았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서 격차가 컸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남학생이 크게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남 3.8%, 여 1.0%), 수학(남 8.0%, 여 5.8%), 영어(남 4.2%, 여 1.8%)였고, 고등학교도 국어(남 6.7%, 여 2.4%), 수학(남 10.8%, 여 7.5%), 영어(남 5.2%, 여 2.3%) 모두 남학생의 미달 비율이 높았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중학교 수학·영어에서 큰 차이를 보여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수학의 경우 대도시 72.6%, 읍·면 58.6%였고, 영어는 대도시 77.0%, 읍·면 65.0%였다. /이종형기자 golee@

실업급여 부정수급 광주·전남 18명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8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퇴사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 채모(여·57)와 사업주 김모(55)씨, 법인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행정적 조치로 채씨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예정이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도 허위 근로 신고를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타낸 부정 수급자 16명을 적발, 전원 형사 입건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진미액 250g **3,800 원**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고읍 원암길 185-95 Tel. 061)745-9907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제품 설명

-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아토타우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진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경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환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김경경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송양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물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조개분말(개당) **7,000 원**

구매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